

# 계엄 당일 경찰 “도대체 누구 체포”...방첩사 “한동훈·이재명”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조지를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9쪽 분량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장이 당일 오후 11시30분부터 20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구 과정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

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정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변했다.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계장이 이후 정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조정관은 오후 11시30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윤 조정관은 우중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방첩사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명단을 조 처장에게 보고하고 조지호에게 보고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미 명단은

조지호·김봉식 공소장...경찰청장에 “韓 체포조 5명 지원”  
경찰 “李·韓 들은 사실 없어...검찰이 방첩사 진술만 채택”  
국회 출입통제 당시 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

방첩사에 넘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은 당시 국회 인근에 모였다.

조지호 경찰청은 사실상 불법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조지호 없이 묵인·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수본은 그간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계엄 당일 서울청 간부가 국회 전면 출입 통제에 반대했지만, 조 청장이 이

를 강행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오후 11시41분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는다”며 “경찰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국장을 통해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했다.

조 청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임 국장을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오 차장은 4일 오전 0시37분께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해 오전 3시30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며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했다.

경찰 병력을 몰래 이동시키려고 했던 상황도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또 오후 9시16분께 공화문 타격대를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또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협조해달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고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지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공개됐다. /연합뉴스

## 김용현 첫 내란 재판서 ‘사법부 계엄 판단 권한’ 공방

김 전 장관측 “공소기각” 주장  
검찰 “범죄 해당하면 사법심사가능”  
법원, 경찰수뇌부 병합·집중심리 검토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지쿠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중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인 이희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희상(오른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해 옳다. 그러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

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재판부는 증거 규모와 구속 기한을 고려해 2주에 3회 정도로 집중심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여야, 오늘 ‘계엄·내란 특검법’ 담판

합의 불발시 野 ‘내란 특검법’ 처리 전망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놓고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한 뒤 이 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특검법 합의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동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룰 경우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김용현 첫 재판 주요 공방** 1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b>김용현(66)</b> 전 국방부장관	<b>검찰</b>
내란 중요임무 중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전속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심사 권한
검찰 공소기각 요청	검찰 판단 관련
병합 심리 요청, 충분한 반대 신문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경찰 수뇌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과 병합
반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중거규모 구속 기한 고려한 집중심리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가능 (판례 등 근거)
	수사개시 권한 인정
	반대, 병행 가담 내용·입장 등 상이 및 병합시 재판 지연 우려
	집중 심리 요청, 한주에 2회 또는 3회 바람직

**연합뉴스**

· 박진수부각 명절 선물세트 ·

**소중한 분께 정성을 가득 담아 행복을 전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명절, 결혼식 등 특별한 날 귀한 분들과 폐백 음식 등 선물용 답례품으로 김부각을 선물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프리미엄 수제 부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박진수부각 선물세트**

선물세트(소): 3팩 ... 16,000원  
4팩 ... 20,000원

선물세트(중): 5팩 ... 24,000원  
6팩 ... 28,000원  
7팩 ... 33,000원

선물세트(대): 10팩 ... 47,000원

\* 찹쌀김부각 / 찹쌀다시마부각 / 찹쌀카레김부각 선택 가능

\* 배송비 3,000원 별도

선물세트(소)    선물세트(중)    선물세트(대)

**박진수부각**  
PARKJINSOO BUGAK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TEL. 062-941-8511 / 010-3602-6623

**N** 박진수부각